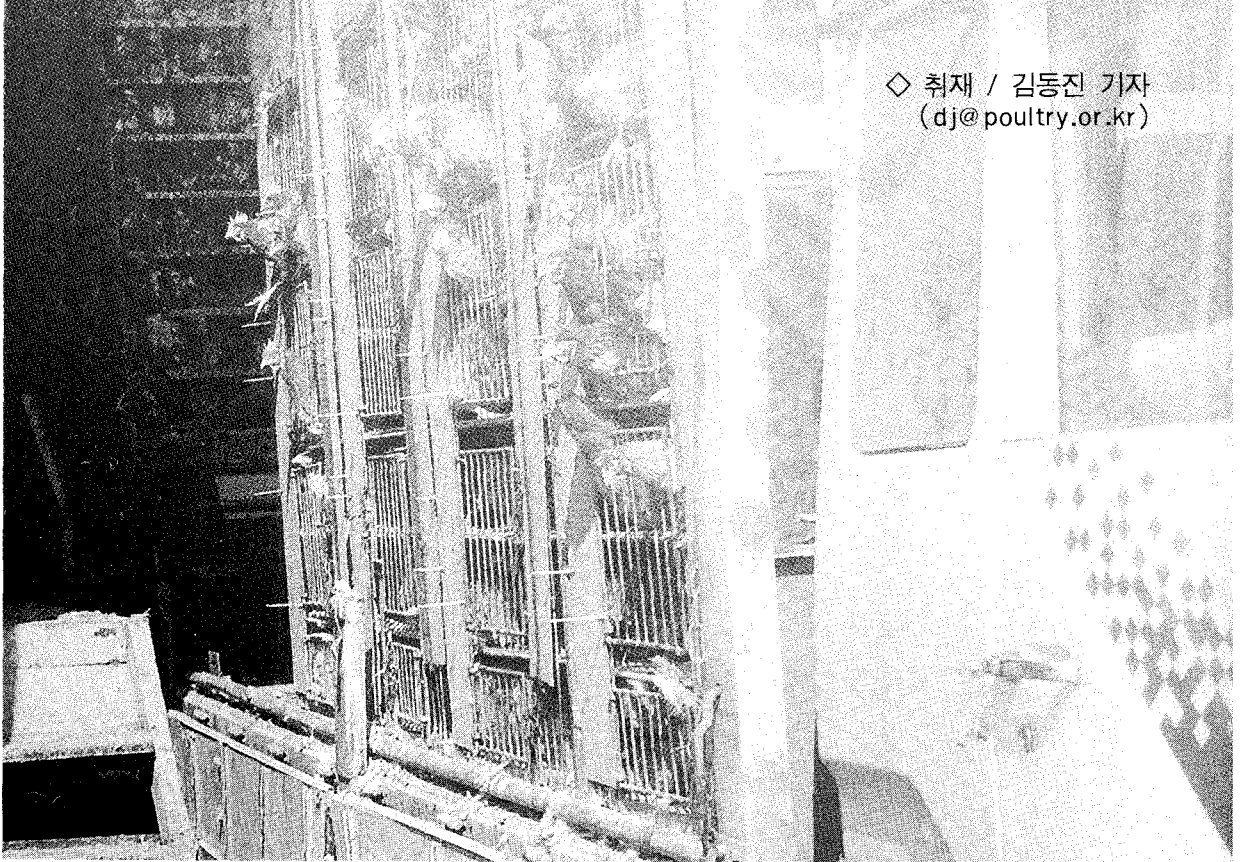


노계 비축시설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로 불건전한 유통시장 막아야...

◇ 취재 / 김동진 기자
(dj@poultry.or.kr)



1. 노계처리 현황

국내에서 도태되고 있는 노계물량은 1년에 약 3,300만수(약 3만톤)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90%에 해당하는 3천만수 정도가 산란노계이며, 9%에 해당하는 3백만수는 육용종계, 1%(48만수)는 산란종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이를 기초로 하여 볼때 하루에 매일 약 9만수 정도의 노계 물량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계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쳐 계란가격 하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노계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계정육업체 등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후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

표1. 연간 노계육 생산량

	산란 노계(수)	산란종계 노계(수)	육용종계 노계(수)	노계출하수수	노계육 생산량(톤)
1999	30,408,000	474,895	2,768,119	33,651,014	29,664
2000	32,531,000	491,980	3,099,942	36,122,922	32,067
2001	28,915,000	539,946	2,971,090	32,426,036	29,202
2002	28,259,000	415,310	3,204,330	31,878,64	29,148

생체중량 : 육용종계는 4kg, 산란(종계)계는 2kg을 기준으로 함,
정육율 : 육용종계 46%, 산란(종계)계 36%

내에서 노계를 처리하고 있는 노계전문 도계장은 정우식품(주), (주)유진, 금강종합식품(주) 3곳으로 각 회사마다 1일 2~3만수 정도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물량은 규모가 영세한 6~7개 정도의 도계시설에서 임도계로 처리되고 있다. 규모가 큰 도계장에서는 노계가공까지 이루어져 육가공업체의 원료육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처리장에서는 통닭으로 작업이 이루어져 유통되기도 한다.

이를 볼때 현재 노계물량이 꾸준히 생산만 되어진다면 현재 시설로도 무리없이 노계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계는 양계산물 가격 변동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산란계의 경우, 난가가 높으면 노계출하가 지연되고 난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일시에 홍수출하되면서 유통의 흐름을 마비시키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노계유통 상인들이 난립하면서 유통을 더욱 혼란하게 만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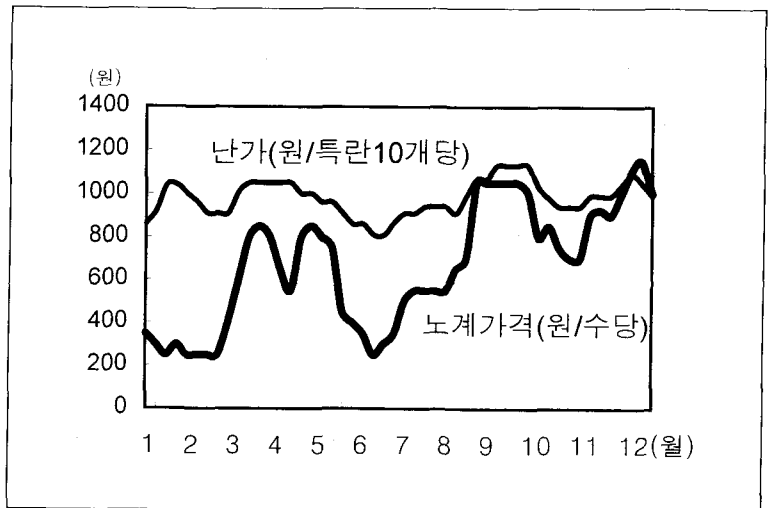
2. 노계가격 진폭 현상 뚜렷

노계시장은 채란업계의 노력은 물론 정책적으로 안정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취약한 사업으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실은 도표1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난가의 변동에 따라 노계가격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변동폭 또한 난가보다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계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향이 많고 지속적으로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체 도계처리 시설은 어느정도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도계물량이 몰릴 경우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유통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해의 노계 최저가격은 200원, 최고가격은 1,150원을 기록하면서 평균 665원을 기록한 바 있다.



〈도표1〉 난가와 노계가격 추이(2001년도)

3. 노계체중이 낮아지고 있다

육종업이 발전하면서 해가 바뀔 수록 노계 체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산란노계의 경우 수당 2kg을 기준으로 유통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중량미달에 의한 제가격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계정육업체나 도계장에서는 2kg으로 계산하였을때 정육율이 5%정도 떨어지는 현상으로 육가공업체에 납품하면서도 이익을 남기기가 힘들었다.

본 협회에서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지난해까지의 연도별 노계 체중이 변화된 것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종계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산란계의 경우는 2kg이던 노계가격이 1.9kg대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육종업의 발전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수당 2kg 기준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1.9kg으로 낮춰 발표하고 있어, 그동안 중량차에서 받아온 생산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계정육업체나 노계도계장에서 납품업체로부터 5%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2. 연도별 노계 체중변화

연도	종계	산란계
1995	3.98	1.99
1996	4.02	1.98
1997	4.00	1.98
1998	3.97	1.95
1999	3.95	1.97
2000	4.01	1.96
2001	4.11	1.91

(자료 : 대한양계협회)



▲전체 계육의 7~8%에 해당하는 노계육 시장도 홍콩 등 외국에 닭날개를 수출하는 등 양계산업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4. 노계도계 처리현장을 찾아서

본 기자가 찾은 곳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정우식품(주)(대표 이한철)로 노계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사로 국내에서는 노계를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다. 정우식품(주)는 1986년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에 회사를 설립하고 노계전문 도계장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부지 2,300평에 건평 800평에서 135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최대 1일 3만수의 노계를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노계의 특성상 수급조절이 어려운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한철 사장을 필두로 지금까지 건실하게 사업경영을 해오고 있으며, 1997년 IMF를 힘겹게 극복해 나오면서도 1998년부터 홍콩에 닭날개 153톤을 수출하는가 하면, 지난해까지 802톤 물량을 수출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HACCP인증 작업을 착수한 결과 도계시설은 물론 직원들의 위생수준이 높아지면서 빠르면 금년 상반기안에 HACCP작업장으로 인증받게 되면 일본에까지 수출물량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계산업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정우식품 가족들(아래 좌부터 이한빈 차장, 이한철 대표이사, 송현섭 상무)

정우식품(주)의 이한철 사장은 국내 노계업체가 무척 취약한 시장이라 언급하고, 노계산업 활성화 및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사이비 노계유통상인 배제, 노계비축시설 확보, 노계가공품 개발, 수출 확대 등이 노계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제시하였다. 현재 정우식품에서는 현재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30만수물량(10~15일 정도의 작업물량)을 비축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금년말까지는 완성할 계획에 있다.

보관창고를 확보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내포되어 있다. 가장 큰 목적이 연중 가동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작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며, 악덕 유통상인들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특히, 여유있는 배차운행으로 노계를 운반하는 기사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국내 노계정육업체들이 겪고 있는 일이지만 정우식품(주)도 노계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물량 확보이다. 물량이 밀릴때는 작업시간을 늘리기도 하지만 노계출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동율이 낮아져 경영상 어

려움을 겪기도 한다.

정우식품(주)에서 농가와 직거래를 하고 있는 물량은 10%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1년에 유통상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만 해도 2~3,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원가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농가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즉, 지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임(계우회 등)을 중심으로 출하물량을 확보해 주면 유통비중 일부를 농가에 환원해주는 방법이다. 종계의 경우는 몇개 지역에서 이 방법으로 물량확보가 되고 있으며, 산란계도 일부 지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5. 노계산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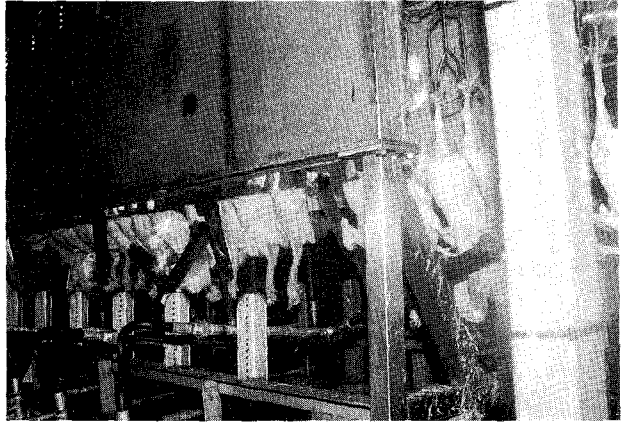
1) 가격안정

노계산업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격의 안정이다. 일본의 경우는 노계를 일종의 폐기물로 간주하여 100원 이하의 가격에 처리하거나 심지어는 농가에서 처리비용을 70~80원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국내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즉 채란업에 있어서 노계를 수익으로 책정하여 계산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는 노계가격이 생산자들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최선을 찾는다면 적정 노계연령(산란계 20개월, 육계 18개월)에 들어섰을 때 정상적으로 출하를 시키는 것으로 어느 정도 노계가격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직거래 유통이 형성되어야 하고 노계처리장에서는 물량을 비축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

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계장들이 자금력이 부족하다 보니 시설 투자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 건전한 유통시장 형성

노계 유통업자들이 난립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육계의 경우 계열화 사업이 기틀을 잡아갈 무렵 유사 계열업체들이 유통에 참여하면서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가져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이들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



▲노계도계 과정은 육계도계 작업 보다 정교하고, 수작업이 많으며, 시간을 요하는 작업으로 진행된다.(도계 과정중 화염에 의한 잔털제거 광경)

화통화만으로 닭들을 소개한 후 소개비를 챙기는가 하면 자금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 도주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다.

이같은 현상이 노계업계에도 만연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들도 늘어만 가도 있다. 대부분의 도계장들이 직거래 비중은 적은 반면, 80~90%를 노계유통상인들에게 의존하다보니 유통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노계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되면 농가에 웃돈을 얹어주고 물량을 확보한 후 출하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가격이 상승된 상태에서 계정육업자들에게 판매하여 불노소득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자들은 믿을 수 있는 유통업자들과 거래를 하든지 노계처리 도계장과 직거래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3) 가공품 개발에 투자

노계산업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은 가공품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노계육을 이용하여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 제품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단순히 육가공 원료로 공급이 되다보니, 납품가격이 높게 책정될 경우 돈육이나 수입산 칠면조육으로 쉽게 대체가 될 수 있어 제품공급이 중단되거나 줄어들면 어느 순간에 산업기반이 흔들릴지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노계육을 소비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가공제품 생산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4) 정부의 관심과 지원 필요

이제는 닭고기하면 육계만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전체 계육(육계 및 노계) 중 노계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 계정육업계에서의 수출길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노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계비축시설 지원, 수출 지원 등의 다각도의 방안을 찾아 양계산업의 안정에 일조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노계산업 안정화는 곧 양계산업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양계**